"살맛 나는 전주 만들겠다"

친환경 관광트램 도시·아중호수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온라인 플랫폼 통해 전주발전 5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가장 한국의 멋과 향이 살아있는 살맛 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며 전주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을 통해 전주 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대표 '친환경 관광트램' 도시 지원, ▲아중호수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적극 지원, ▲(구)기무부대 부지 '문화복합공원' 조성 지원, ▲버추얼 스튜디어 건립으로 전주 '영화특별시' 발전 지원,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 격동 속에서 전주를 이끌었던 제조업과 전통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제 전주의 산업적 기반을 다시 정립하고 건강,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전주다움'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대책위원회도 전날 출정식을 개최하고, 이재명 후보 당선과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주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대선 후보 최초로 전국 시·군·구별 공약 226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함께해온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전국 최고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16일, "청년이 중심이 돼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전북미래 청년 자율예산 편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등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는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상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이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북미래 청년자율예산(200억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유망 초기 창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펀드 지원', ▲청년을 포함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센터', ▲'예체능 일자리 경력관리 지원센터',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센터'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익산발전 지역공약 환영"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개통 지원·구도심 재생 등
김수흥 의원 "대선 승리하면 침체된 익산에 새 마중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익산지역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광역시 공약과 함께, 시군구 지역별 공약을 연속으로 발표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익산시 지역공약은 호남의 관문 익산을 아시아 농생명?식품 산업 허브도시로 키우겠다는 큰 틀아래 5가지 세부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 공약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개통 및 세울-세종 고속도로 신설계획 적극 지원, ▲중앙, 창인동 일대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성장 기반 확충, ▲푸드파크 조성(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본격 추진), ▲백제한류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 지원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침체돼 있는 익산에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개통, 구도심 도시재생 등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익산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어촌민박협 전북지부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경숙 국회의원은 16일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식에 함께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1만여 회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화숙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장, 차을환 전남지부장, 김종수 경기지부장, 이기철 제주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화숙 전북지부장이 지지선언 대표로 나섰다.

용화숙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모두 선거에서 국민이 앞장서 지지해 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민박업계가 힘든 시기에도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역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전주 유세가 청년과 일반인 등의 국민참여유세와 전북도당 선대위 당직자·중앙유세본부 문화홍보단의 유세 등으로 구분해 16일 전주역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6일 전북대 구정문상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만나는 접점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세울 것"

국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을 전북에 건립하고자 하는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의 노력이 마침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전주역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열고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스포츠와 일반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한국의 스포츠가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는 태릉에서 진천으로, 동계는 평창 강릉으로 돼 있다"며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을 전북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북도와 남원시, 전북체육회는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일대에 건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강선 회장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도 종합훈련원 건립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 사업은 2,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약 26개 종목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도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 상임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종대 위원장은 "윤 후보의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발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훈련을 받기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했던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안호영 의원, "4기 민주정부 출범 국민께 선사"

전북대 상인들과 간담회서 '한국형 PPP' 도입 필요성 강조
민주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전주·익산 드 돌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선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당 대표와 전북 주요도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16일 이국 회장, 김상수 부회장, 홍재화 부회장 등 전북대 구정문 상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개강 연기와 방역수칙 등 현실성 부족한 정책과 소상공인 대출 상환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 단체의 요청을 받아 미국의 PPP제도를 개량한 '한국형 PPP'의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PP제도'란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의 뜻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안 의원은 지역화폐 대폭 확대,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소개하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와 함께 전북 주요도시 지지유세에 나섰다.

전주에서는 평화동 사거리, 삼익수영장 로터리, 전북대 구정문 등지는 물론, 익산역 사거리,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 등에서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지호소 유세를 벌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전북지역에서 반드시 '8090(80% 투표율, 90% 득표율)'을 통해 4기 민주정부 출범을 국민께 선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청취

행자위 "공무원 횡령 사례 없도록 시스템 재점검 해야"
교육위 "4차 산업혁명 걸맞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6일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등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최근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도 같은 날 전주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도내 13개 관·원의 2022년 상반기 업부보고 청취를 마쳤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교육위원들이 늘 강조했던 지역 특색이 들어간 프로그램 확대와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을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올바른 미디어리터러시 확립도 놓치지 않고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차별화된 약재·비율 바탕 쌍화차 생산… 향후 발전 기대"

도의회 농산경위, 둥지쌍화탕 찾아 현장 의정활동 펼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6일 정읍시 소재 칠보농협 응동제약 및 둥지쌍화탕(주)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역 특화작물인 생지황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칠보농협 응동제약'을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응동제약 가공공장은 지난 2015년 GMP 시설인증, 2021년 햅썹인증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건지황, 숙지황, 쌍화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칠보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지황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지황 생산의 맥을 잇고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응동제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들이 16일 정읍 소재 둥지쌍화탕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응동제약에서 생산한 건지황, 숙지황 및 쌍화차의 경우 정읍 쌍화차 거리, 농협홍삼, KT&G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 사이 매출 증가율이 매년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작년 정읍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둥지쌍화탕(주)을 방문해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권 위원(김제 2)은 "둥지쌍화탕(주) 최방호 대표는 20년 넘게 전통찻집을 운영해 온 전문가로서 기존의 둥지쌍화탕찻집을 2021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체로 규모를 확대 둥지쌍화탕만의 차별화된 약재와 비율을 바탕으로 한 쌍화차 생산을 통해 1년간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